어디서나 들어맞는 세상의 법칙

회의실에서 댓글창까지, 이름 붙은 8가지 법칙

01 오컴의 면도날
02 도구의 법칙
03 클라크의 3법칙
04 파킨슨의 법칙
05 사소함의 법칙
06 하인리히 법칙
07 고드윈의 법칙
08 커닝햄의 법칙



읽고, 해보고, 내 지식으로.

잡학서고

차례

들어가며 4

이 책을 읽는 법 5

PART 1 · 생각의 법칙 6

01 오컴의 면도날 7
가정을 깎는 사고법

02 도구의 법칙 13
망치를 들면 모든 것이 못으로 보인다

03 클라크의 3법칙 20
마법과 구별할 수 없는 기술

PART 2 · 일터의 법칙 27

04 파킨슨의 법칙 28
일은 시간만큼 늘어난다

05 사소함의 법칙 34
쉬운 일에만 말이 길어진다

06 하인리히 법칙 41
큰 사고의 예고편

PART 3 · 인터넷의 법칙 49

07 고드윈의 법칙 50
논쟁이 길어지면 극단적 비유가 나온다

08 커닝햄의 법칙 57
틀린 답을 올리면 정답이 온다

부록 64

A. 8가지 법칙 한눈에 보기 64
B. 상황별 법칙 처방전 65
C. 박학퀴즈 정답과 해설 66
D. 나만의 법칙 노트 68
원문 출처 69

PROLOGUE

들어가며

회의는 왜 사소한 안건에서 가장 길어질까요? 마감이 넉넉한 일은 왜 꼭 마감 직전에 끝날까요? 질문엔 조용하던 게시판이 틀린 답 하나에 왜 들썩일까요?

사람들은 이런 장면을 몇 번이고 겪은 끝에, 거기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파킨슨의 법칙, 사소함의 법칙, 커닝햄의 법칙처럼요. 이름이 생기면 장면이 보이고, 장면이 보이면 대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책의 '법칙'은 대부분 실험실에서 증명된 과학 법칙이 아닙니다. 오랜 관찰을 한 문장으로 압축한 경험칙이거나, 조직을 꼬집은 풍자이거나, 생각의 순서를 정해 주는 지침입니다. 그래서 각 장에는 법칙이 어디서 왔는지와 함께, 어디까지 믿으면 안 되는지도 담았습니다.

잡학서고 테마서고 「어디서나 들어맞는 세상의 법칙」의 글 여덟 편을 생각·일터·인터넷 세 갈래로 다시 엮고, 장마다 30초 요약과 오늘 써먹을 거리, 박학퀴즈를 더했습니다. 처음부터 읽어도 좋고, 지금 마주한 고민에 맞는 장부터 펼쳐도 좋습니다.

잡학서고 서고지기 드림

HOW TO READ

이 책을 읽는 법

각 장은 같은 순서로 짜여 있어요. 바쁠 땐 굵은 글씨만 따라가도 핵심이 잡힙니다.

01 **장 표지**
법칙의 이름과 별명, '한 줄 정의', 처음 나온 때와 사람

02 **30초 요약**
본문을 읽기 전에 훑어보는 세 줄

03 **본문과 인포그래픽**
법칙의 유래, 원리, 오해와 한계까지

04 **오늘 바로 써먹기**
내일 회의, 오늘 댓글에 바로 옮길 수 있는 행동 세 가지

05 **박학퀴즈**
한 문제로 확인하기. 정답과 해설은 부록 C

06 **함께 읽으면 좋은 법칙**
서로 이어지는 법칙으로 건너가는 징검다리

PART 1
생각의 법칙
오컴의 면도날 · 도구의 법칙 · 클라크의 3법칙

PART 2
일터의 법칙
파킨슨의 법칙 · 사소함의 법칙 · 하인리히 법칙

PART 3
인터넷의 법칙
고드윈의 법칙 · 커닝햄의 법칙



지금 고민이 있다면 부록 B '상황별 법칙 처방전'부터 펼쳐 보세요. 필요한 장으로 바로 안내해 드려요.

PART 1

생각의 법칙

판단을 맑게 하는 세 개의 렌즈

설명을 고를 때, 해결책을 꺼낼 때, '불가능'이라는 말을 들을 때. 머릿속에서 먼저 작동하는 습관을 점검하는 법칙들입니다.

01 오컴의 면도날 — 가정을 깎는 사고법

02 도구의 법칙 — 망치를 들면 모든 것이 못으로 보인다

03 클라크의 3법칙 — 마법과 구별할 수 없는 기술



법칙은 정답을 알려 주는 공식이 아니에요.
어디부터 의심할지 알려 주는 손전등에 가깝답니다.



01

"가정을 깎는 사고법"

오컴의 면도날

Occam's Razor

한 줄 정의

같은 현상을 설명하는 가설이 여럿이면, 불필요한 가정을 더하지 않은 쪽부터 살핀다.

14세기 · 윌리엄 오브 오컴

30초 요약

1. '단순한 것이 정답'이 아니라 '단순한 것부터 검토'하라는 우선순위의 원칙
2. 면도날이 깎는 것은 어려운 단어가 아니라 군더더기 전제
3. 여러 원인이 겹친 문제에선 면도날만 믿으면 중요한 요인을 잘라 낼 수 있음

복잡한 설명이 늘 더 똑똑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지각이 밀린 이유를 '버스가 늦게 오고, 신호도 안 맞고, 엘리베이터까지 고장 났다'고 줄줄이 늘어놓으면, 듣는 사람은 오히려 의심이 커집니다. 반대로 "길이 막혔다" 한 문장이 더 설득력 있게 들릴 때가 많습니다. 불필요한 가정을 덜어 내고 가장 단순한 설명을 먼저 살피라는 지적 습관, 바로 '오컴의 면도날(Occam's Razor)'입니다.

오컴의 면도날이란 쉽게 말해 '같은 현상을 설명하는 여러 가설이 있을 때, 불필요한 가정을 더하지 않은 쪽을 우선하라'는 방법론적 지침을 의미합니다. 14세기 영국의 스콜라 철학자 윌리엄 오브 오컴(William of Ockham)의 이름과 연결된 이 원리는, 과학·의학·일상 판단에서 '복잡한 이야기부터 믿지 말라'는 검열 장치로 쓰입니다.

01 오컴의 면도날이란 무엇인가?

오컴의 면도날은 '진실은 반드시 가장 단순한 것'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설명에 필요한 존재·원인·단계를 함부로 늘리지 말라**는 절약의 원칙입니다. 라틴어로는 흔히 "Entities must not be multiplied beyond necessity"로 요약되며, 우리말로는 '필요 이상으로 존재를 늘리지 말라'에 가깝습니다. 오컴 본인이 남긴 문장과 후대가 정리한 격언은 조금씩 다르지만, 방향은 한결같습니다.

이 원칙을 읽을 때 함께 두면 좋은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설(Hypothesis)	어떤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세운 주장입니다.
가정(Assumption)	그 가설이 성립하기 위해 미리 받아들이는 전제입니다.
절약 원리(Principle of Parsimony)	설명력이 비슷할 때 더 단순한 쪽을 선호하는 태도입니다.
면도날(Razor)	불필요한 가정을 '깎아 내는' 비유입니다.

쉬운 예로, 밤에 지붕에서 소리가 날 때 "귀신이 다닌다"보다 "다람쥐가 뛰었다"가 먼저 검토되는 까닭은 후자가 초자연적 존재를 가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증거가 쌓이면 더 복잡한 설명도 열리지만, **출발점은 단순한 쪽**입니다.



한눈에 보는 오컴의 면도날 · 잡학서고 인포그래픽

02 흔히 생기는 세 가지 오해

오컴의 면도날은 유명해진 만큼 잘못 인용되기도 쉽습니다. 다음 세 가지를 구분하면 개념이 선명해집니다.

1. **'단순한 것이 항상 옳다'가 아닙니다**
   면도날은 진리 판정기가 아니라 **우선순위를 정하는 도구**입니다. 단순한 가설이 데이터와 맞지 않으면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먼저 본다'와 '끝까지 믿는다'는 다릅니다.

2. **'쉬운 설명이 곧 좋은 설명'이 아닙니다**
   일상 언어로 쉽다고 가정까지 적은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전문 용어가 많아도 핵심 가정이 더 적을 수 있습니다. 면도날이 깎는 것은 어려운 단어가 아니라 **군더더기 전제**입니다.

3. **'복잡한 이론은 무조건 나쁘다'가 아닙니다**
   행성 운동을 설명하려면 뉴턴 역학처럼 정교한 구조가 필요합니다. 문제는 복잡도 자체가 아니라, **같은 현상을 설명하면서 불필요하게 가정을 더하는 일**입니다.

이 오해들을 걷어 내면, 면도날은 '게으른 단순화'가 아니라 '설명의 군더더기를 점검하는 습관'으로 보입니다.

03 과학과 일상에서 면도날이 하는 일

과학사에서 오컴의 면도날은 경쟁 이론을 고를 때 자주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지동설이 천동설보다 '지구를 특별하게 만드는 가정'을 덜 필요로 한다는 점이, 코페르니쿠스(Copernicus) 이후 논의에서 설득력의 한 축이 되었습니다.
의학에서는 비슷한 증상이 있을 때 희귀병부터 의심하기보다 흔한 원인을 먼저 살피는 '말발굽 소리면 말부터 생각한다'는 임상 격언과 맥이 통합니다. 둘 다 '먼저 어디를 볼 것인가'를 정하는 규칙입니다.

일상에서도 쓰임은 분명합니다.

기기 고장	'해킹당했다'보다 '배터리·케이블·설정'부터 점검합니다.
인간관계	'모두 나를 음해한다'보다 '오해·일정 충돌'을 먼저 살핍니다.
정보 판별	자극적인 음모론보다, 확인 가능한 사실로 설명이 되는지를 묻습니다.

즉 면도날은 **의심을 끄는 스위치가 아니라, 어디부터 검증할지 정하는 나침반**입니다. 시간이 유한한 현실에서, 이 나침반은 불필요한 우회를 줄여 줍니다.

04 단순함이 한계가 되는 순간

현실의 문제는 때로 여러 원인이 겹칩니다. 기후 변화, 경제 위기, 만성 질환처럼 **단일 원인으로 환원하기 어려운 현상**에 면도날만 들이대면, 중요한 요인을 '불필요한 가정'으로 오인해 잘라 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내가 익숙한 설명'을 '단순한 설명'으로 착각하는 확증 편향도 경계해야 합니다. 익숙함과 절약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현대의 사고법은 면도날과 함께 **반증 가능성**, **데이터와의 정합**, **예측력**을 나란히 둡니다. 가정이 적어도 틀릴 수 있고, 가정이 많아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질문은 "더 단순한가?"만이 아니라 "이 설명이 새로운 관찰을 얼마나 잘 맞히는가?"입니다.

오컴의 면도날은 세상을 납작하게 만드는 칼이 아닙니다. 쓸데없는 장식을 걷어 내고, 검증할 가치가 있는 설명을 먼저 책상 위에 올려 두는 습관입니다. 복잡한 이야기를 듣기 전에 한 번 더 '이 가정은 꼭 필요한가?'라고 묻는 것, 그것이 맑은 판단의 첫걸음입니다.

오늘 바로 써먹기

- [ ] 기기가 말썽이면 '해킹'보다 배터리·케이블·설정부터 확인하기
- [ ] 누군가를 오해하기 전에 '일정 충돌이나 착오였을 가능성' 먼저 떠올리기
- [ ] 자극적인 주장 앞에서 '이 가정은 꼭 필요한가?' 한 번 묻기

박학퀴즈

잡학을 넘어 박학다식으로!

Q1. 오컴의 면도날이 '깎아 내는' 것은 무엇일까요?

① 어려운 전문 용어
② 불필요한 가정
③ 복잡한 이론 전부
④ 새로 나온 데이터

정답과 해설은 부록 C에 있어요 →

함께 읽으면 좋은 법칙

02 도구의 법칙

익숙한 설명만 '단순하다'고 착각하면 망치 하나로 모든 문제를 보게 됩니다.

나의 메모 이 법칙이 떠오른 순간을 적어 두세요

APPENDIX B

상황별 법칙 처방전

지금 겪는 상황을 찾고, 옆의 장으로 건너가세요.

회의가 사소한 안건에서 끝나지 않을 때	**05 사소함의 법칙** 안건마다 시간 상한, 큰 안건 먼저
	04 파킨슨의 법칙 회의 자체에 시간 상자 씌우기
마감이 멀수록 오히려 손이 안 갈 때	**04 파킨슨의 법칙** 나만의 이른 마감 정하기
원인을 몰라 온갖 추측이 난무할 때	**01 오컴의 면도날** 가정이 가장 적은 설명부터 검증
늘 같은 해결책만 떠오를 때	**02 도구의 법칙** 문제부터 적고, 다른 분야의 눈 빌리기
‘그건 불가능해’라는 말을 들었을 때	**03 클라크의 3법칙** 근거가 자연법칙인지 기술 수준인지 가리기
아슬아슬한 일이 자꾸 반복될 때	**06 하인리히 법칙** 아차 사고 기록, ‘누가’보다 ‘왜’
댓글 싸움이 점점 거칠어질 때	**07 고드윈의 법칙** 비유보다 근거, ‘그 비교 맞을까?’
질문을 올려도 아무 답이 없을 때	**08 커닝햄의 법칙** 내가 이해한 초안을 먼저 적고 묻기

PREVIEW · 미리보기 끝

여기까지 맛보기였어요. 나머지 일곱 가지 법칙이 기다리고 있어요.

02 도구의 법칙 — 망치를 들면 모든 것이 못으로 보인다

03 클라크의 3법칙 — 마법과 구별할 수 없는 기술

04 파킨슨의 법칙 — 일은 시간만큼 늘어난다

05 사소함의 법칙 — 쉬운 일에만 말이 길어진다

06 하인리히 법칙 — 큰 사고의 예고편

07 고드윈의 법칙 — 논쟁이 길어지면 극단적 비유가 나온다

08 커닝햄의 법칙 — 틀린 답을 올리면 정답이 온다

\+ 박학퀴즈 8문제와 해설 · 8가지 법칙 한눈에 보기 · 나만의 법칙 노트

전자책 전체 · PDF 70쪽

4,900원

잡학서고 회원이면 누구나 구매할 수 있어요

gklibrarykor.com/ebook-world-laws

잡학서고

이 파일은 무료 미리보기입니다.
자유롭게 공유해 주세요.